

### 코로나19에 미뤄지는 고교 학사일정

# “여름방학 2주뿐... 수험생 악재로”

입시 관계자들 “N수생 유리할 것”  
수시모집 등 수능 준비기간 짧아져  
형평성 문제, 수능연기 여부 변수로



코로나 19로 고교 학사일정이 전체적으로 미뤄지면서 올해 대입에서 고3 수험생이 N수생보다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고등학교 3학년 교실 창문에 ‘합격 기원’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고교 학사일정이 전체적으로 미뤄지면서 올해 대입에서는 고3 수험생이 재수생보다 불리할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의 정시확대 방침과 학생부 기재 확대 방안도 이같은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25일 입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시·정시 일정 순연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입시는 N수생보다 재학생에게 불리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졸업생은 학사일정에 구애받지 않지만, 고3 수험생의 경우 짧아진 수시모집 준비 기간과 여름방학이 이번 대입을 준비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2주로 줄어든 여름방학도 고3 수험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고3 학생의 경우 여름방학에 자기소개서나 과탐 사탐과 같은 암기과목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이 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워 N수생과의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

이 소장은 “고3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활용한다는 계획은 틀어지는 반면, N수생의 경우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고, 또 재학생과 달리 촉박하게 내신 등에 쫓기지 않고 수

능이나 대학별 고사의 부족분을 채우면 되므로 한결 여유가 있다. 그러므로 올해는 정시 수능 전형은 물론 논술, 구술면접, 적성고사 등 대학별 고사가 반영되는 수시 전형에서도 예년에 비해 N수생들의 불리함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입시 불공평 이슈를 부른 ‘조국 사태’가 불거지며 정부가 추진한 정시확대 방침도 N수생 강제 예측에 힘을 실는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정시를 2023학년까지 40% 이상 확대하도록 했다. 앞서 2018년 ‘2022대입개편’에서도 전체 대학에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맞출 것을 요구했다. 반복학습이 유리한 정시 특성상 N수생이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교적 N수생에게 불리하던 학생부 종합전형도 올해는 상황이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학생부 기재요령이 강화돼 교사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해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과거 학생부에서 교사의 관심이 소수 우수학생에게 집중했다면 이번 기재요령 강화로 이제는 학생부 기재 공력이 전교생에게 분산된다”면서 “이미 학생부 기재를 마친 N수생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고3 재학생과 N수생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수능 연기 여부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한다. 올해 학사일정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애초 계획된 11월 19일에 치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여론이 높다.

교육부는 수능 기본계획 발표일인 오는 31일 전후로 수능 연기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일짜에는 구체적인 대학입시 일정 변동 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부산대,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 최종합의

# “대학 인프라 연계... 전국단위 장애학생 지원”

부산시·장애인부모단체 등 MOU  
금정산 생태교육센터 건립도 추진

장애 학생이 전문적인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가 부산대학교 캠퍼스에 설립될 전망이다.

부산대학교는 ‘부산대 사범대학 부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 기관·단체간 최종 합의를 이루고 교육부와 부산광역시, 부산시환경단체·장애인부모단체가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고 밝혔다. 예술 중고등 특수학교는 21학급 138명(중학교 54명, 고등학교 84명) 규모로 전국 단위 장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2022년 3월 개교가 목표다.

학교 위치는 금정산 아래쪽 부산대 대운동장 인근 1만4000㎡ 규모 부지다. 부지의 70% 이상은 현재 공원과 부산대 순환버스 차고지로 이용되는 부산대 캠퍼스 안쪽이다. 부산대는 금정산 장정공원의 보존을 위해 약 1만 8000㎡에 해당하는 부지에 대한 공원

구역 지정에 동의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에 적극 협조기로 했다. 또 금정산 환경적 가치 홍보와 자연환경 보호 활동과 교육을 위한 ‘금정산 생태환경 교육센터’ 설립 공간도 제공기로 했다.

특수학교는 부산대 사범대학과 예술대학의 각종 교육연구시설 인프라를 활용해 금정산 자연숲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장애학생과 시민들이 숲과 함께 쉴 수 있는 공존의 방향으로 설립된다.

/한용수 기자 hys@

### 서울시교육청 ‘청소년 활동사례’ 공모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와 마을에서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자치활동을 한 ‘청소년 활동사례’와 이러한 청소년을 지도하고 함께 활동하는 ‘청소년 멘토 활동사례’를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소년 활동사례 부문은 학교나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등에서 청소년 자율 동아리와 자치활동에 참여한 활

동 내용과 활동을 통해 달라진 학교와 지역사회, 단체의 모습에 대한 과정을 응모하면 된다.

청소년 멘토 활동사례 부문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청소년 활동을 지도하거나 지원하는 교사,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단체 지도자, 대학생 등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



2020서울형혁신교육지구 청소년활동사례 공모 포스터 /서울시교육청

# 군인은 정부의 깃목인가



문영철

국방기자 칼럼

대한민국 국군장병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참기름 짜듯 쥐어짜고 그마저도 부족해서 남아 있는 깃목처럼 탈탈 털리는 존재다. 몇푼되지 않는 월급에 군역과 코로나19 대민지원과 같은 사역도 나선다. 야외활동이 많아 지급됐던 보건용 마스크(KF94)도 줄어들었다. 간부들은 감봉과 월급동결이 고개를 내민다.

장병들은 휴가 및 외박, 외출과 면회도 통제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위협에서 절대 안전하지 않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헌혈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군인들이 혈액 부족 해소를 위한 중추 역할을 하고 있고, 대민지원과 같은 외부노출과 경계근무 등의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장병들의 헌혈은 계속이어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헌혈 중 장병의 코로나 19 감염 위험은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지난18일과 19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가 포항 해병부대에서 장병들에게 단체 채혈 업무를 했다. 그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21일이었고 장병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다행히 코로나 19가 장병들에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군당국은 6일 매일 보급하던 보건용 마스크를 주 2대로 줄인 상황이었다. 국내 보건용 마스크 수급 안정화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서라지만, 장병들의 땀을 줄여 모두가 위험해질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부대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국군장병

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한장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익명의 장교는 “대구·경북 지역 일부 부대는 보건용이 보급되지만 그의 부대는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보건 혜택과 동떨어진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가족들은 마스크 배급에 끼기도 힘들다”라고 말했다. 익명의 병은 “경계근무가 있는데 일주일에 보건용 2장으로 버티는 것은 무리”라면서 “면마스크의 효용성도 문제지만, 호흡도 불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병의 코로나 검사도 문제다. 군당국은 훈련병의 코로나 검사를 빠르게 하겠다고 4명의 검체를 묶어 검사를 실시했다. 검체가 섞이지 않게 한명 단위로 검사를 해야되는데 말이다. 군당국은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빨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아이디어였다.

그렇다. ‘더 싸고 더 빠르게’가 군대의 모토이니 그 험그림 정신이 어디가겠나. 정신승리에 취해 있는 대한민국 고위직들에게 국군장병은 쥐어짜야 할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높은 분들의 거지발싸개 같은 사고는 코로나19처럼 전염되나 보다. 최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던 그날 국방부 트위터 대변인에는 장병 급식에 사인 머스켓이 제공된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일부 트위터들은 “수련회 같은 군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체력도 키우고 싶다”, “돈아까워요 사인머스켓가격 월급에서 까세요” 등의 댓글을 올렸다.

군대가 생활여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유사시에는 목숨을 걸고 평시에는 국민을 돕는다는 존재 이유는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의료 시설, 마스크 생산공장, 출입국 관리소, 헌혈현장에는 국군장병이 있음을 명심해라. /captinm@

### 명지대 “마루봇으로 학사정보 관리하세요”

(AI기반 챗봇 시스템)

명지대가 ‘AI기반 챗봇 학사지원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챗봇 학사지원시스템은 학생에게 맞춤형 학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챗봇 명칭은 ‘마루봇(사진)’이다.

웹페이지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대

학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 ‘MJU sns 챗봇 버튼’을 클릭해 사용이 가능하다.



타블렛 및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홈 화면에 추가’를 누르면 화면에 챗봇 아이콘이 생성된다.

/이현진 기자

### 사이버한국외대 특성화고에 온라인 외국어 교육

사이버한국외대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온라인 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서울시교육청과 사이버한국외대가 체결한 다국적 언어(외국어) 능력 향상과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활성

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사이버한국외대 평생교육원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관련 6개 강좌로 꾸려진 온라인 외국어교육과정을 지난해 7월부터 2월까지 8개월간 운영했다. 서울시 49개 특성화고에 다니는 1055명의 학생들이 수강했다. /이현진 기자